

에너지/유틸리티 (Overweight)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유가 Comment

Issue Comment

[에너지/화학/정유] 전유진 2122-9193 yujinjn@imfnsec.com, [RA] 장호 2122-9194 hojang@imfnsec.com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주요 외신들은 1/3(토)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공습한 후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보도.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열어 공습 사실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코멘트함. 그 중에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1)정권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고, 2)미국 석유업체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 기존 및 신규 고객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음. 이번 공습이 이뤄지기 전에도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여러 차례 공격 및 나포하는 등 갈등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언급됐던 공격의 배경은 마약 밀매와 테러조직 척결이었음.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을 언급했던 점을 미루어 보면 마약 밀매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트럼프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였던 것으로 판단

꽤나 공격적이었던 공습, 그럼에도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미국의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수도 공습을 넘어 대통령 부부를 압송했다는 점에서 꽤나 공격적임. 단기적으로 지정학 갈등 격화라는 심리적 불편감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으나, 강도와 지속성 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이긴 하나, 오랜 제재와 설비 노후화 등으로 산유량은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원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 또한 90만b/d 그치는 생산량마저 미국의 제재로 8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공습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유전과 정제설비, 항구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공급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트럼프는 과연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을 장악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이번 공습을 계기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해 석유산업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베네수엘라 산유량 증가는 물론, 미국의 제재까지 해제되며 중국 외 수출도 늘어나며 유가 추가 하방요인이 될 수 있음. Kpler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시 현재 80~90만b/d 수준의 베네수엘라 산유량은 몇 개월 내 150만b/d 내외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과거 호황기였던 200만b/d 넘어서려면 상당한 개혁과 글로벌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

트럼프도 미국 업체들 투자를 통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을 구상하고 있는데, 관건은 과연 석유업체들이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인가임. 2000년대 중후반 우고차베스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영화하며 Exxon Mobil, ConocoPhillips 등 당시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미국 업체들은 자산 몰수당하며 철수한 바 있어,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에서 쉽사리 재진입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무엇보다 30년 넘게 이어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환경이 한번에 안정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 노후 인프라 재건을 통한 산유량 증가와 미국 제재 완화로 수출까지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방압력 높아지겠지만, 아직까진 이 시나리오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그림1.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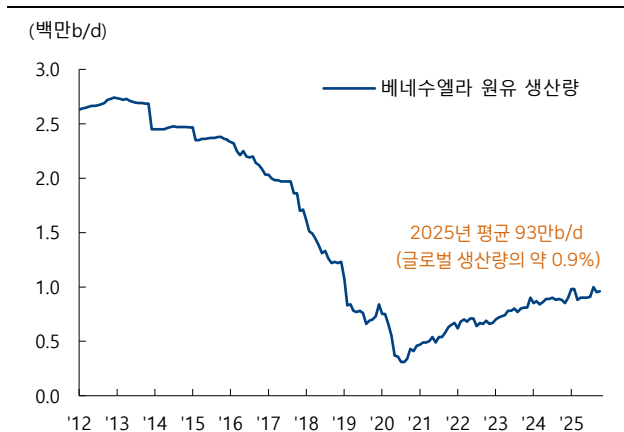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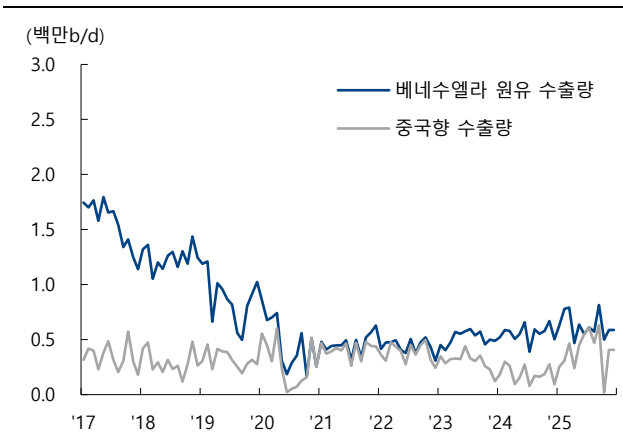


그림2.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및 중국향 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12-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0.6%	9.4%	-